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종교



# 섬기는 자가 높은 자입니다 (마르 10, 35-45)

## 전교인 수련회

### 새일교회

새일교회(담임목사 정병노,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의 전교인 수련회가 안기영 원로목사(광주 지산교회)를 초청한 가운데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열렸다.

첫째 날 행사에서 안 목사는 '네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 15:21-28)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날마다 예수님께 매달려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사랑의 하나님에 의지해 앞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주변의 비웃음과 모욕을 참고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매달려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이다." 라고 말했다.

## 법륜스님 즉문즉설

### LA정토회

LA정토회가 주관하는 법륜스님의 즉문즉설 '행복한 대화' 강연이 오는 20일 오후 7시, LA 한인타운 예수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1209 S. Manhattan Pl, LA, CA90019)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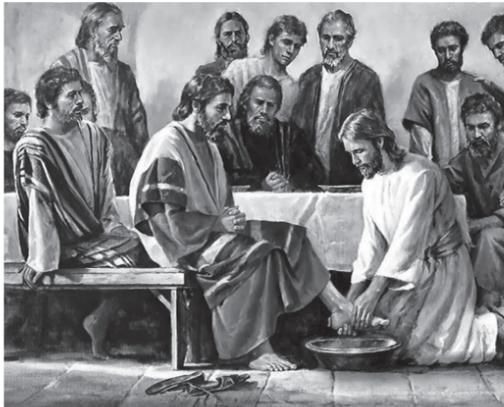
행사는 종교와 계층, 세대와 이념을 뛰어넘어 다양한 사람들의 질문에 법륜스님이 답하고 관객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별도의 예약없이 선착순으로 입장하며 유아는 동반할 수 없다.

법륜스님은 2000년대 이후, 대중들의 고민을 듣고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즉문즉설 강연으로 유명해졌다. 저서 <스님의 주례사>, <엄마수업>, <방향해도 괜찮아>, <인생수업>, <지금여기, 깨어있기>, <야단법석>, <행복> 등은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2002년에는 아시아의 노벨평화상이라 불리는 막사이사이상(평화와 국제 이해 부분)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 문의: (213) 321-8346, la@jungto.org

사람이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명예욕과 권세욕이 강하게 발동한다고 합니다. 즉 남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남보다 위에 서고 싶고 남을 부리고 싶은 강한 충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사람들은 남 앞에 으시대며 큰 소리 치기를 좋아하고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곧장 화를 내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남을 섬겨야 할까요?

섬김과 봉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만 하면 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봉사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으며 죽는 순간에도 자기의 살

어느 단체에서나 보는 일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조그마한 직책이라도, 아니면 최소한 하찮은 명예직이라도 하나 가져야만 흐뭇해하고, 남들 앞에 거드름을 피우면서 나타나곤 합니다. 조그마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데 하물며 한 나라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겠습니까?

러자 소들은 수레바퀴 쪽을 바라보면서 "모두들 빼적거리는 소리를 가만 멈췄으면 좋겠어! 무거운 짐은 내가 끌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소리를 지르는지 알 수 없구나!" 라고 말 하였습니다. 애쓰고 고생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공연히 제가 피로하고 땀 흘리는 체하는 사람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과 피를 우리에게 모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정신에 따라 불쌍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권력을 남용하여 백성들을 짓밟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죄한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사람들이 허울 좋게 백성의 은인으로 자처하는 것 같습니다.

우둔하고 말없이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의 공로를 가로채려는 사람을 꾸짖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혼자 잘난 체하며, 수고하지 않고 큰 소리만 치는 자는 높은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설령 이런 자들이 온갖 권모술수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도 위대한 인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러름을 받기만 하므로 자신이 높은 줄 착각하고 있는데, 이들의 생각은 비뚤어진 것이며, 역사의 심판만 초래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의 봉사 정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에게 한 자리 주십시오." 하며 간청하기 전에 불쌍한 내 이웃 내 형제에게 봉사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죽기까지 봉사하신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나라의 높은 자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힘으로 남을 억누르고, 남으로부터 섬김만 받는 사람들은 참으로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싫어하며, 위대한 자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실로 높은 사람은 누구 일까요?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런 사람은 바로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으며,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마르 10, 44-45)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실천하도록 노력합시다.

-표준관 신부-

법률 문제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서 & 서 법률사무소

www.suhl.com  
info@suhl.com

- **가정법 Family Law**  
이혼, 양육권/방문권, 입양, 리빙트러스트, 혼전(후) 계약
- **이민법 Immigration Law**  
가족/취업이민, 신분변경 E-2, H1B, L, O visa
- **민사/형사법 Civil/Criminal Law**  
민사소송, DUI
- **상법 Business Law**  
법인설립, 계약서
- **번역 업무도 가능합니다**



**서자경 변호사**  
Ja K. Suh, Esq.

**서자현 변호사**  
Ja H. Suh, Esq.

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  
Certified by the State Bar of CA  
Univ. of Missouri-Columbia 법대 (J.D.)  
Univ. of Missouri-Columbia 비평론 석사

California Western 법대 (J.D. Dean's List)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멤버(AILA)  
오렌지카운티 한인변호사 협회 위원회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 이사역임  
오렌지 카운티 회장단 협회 회원 역임

LAW OFFICES OF  
**SUH & SUH**  
A PROFESSIONAL CORPORATION

**L.A. & O.C. (714)368-1655**  
161 Fashion Ln, Suite 111, Tustin, CA 92780

**San Diego (858)622-6279**  
4660 La Jolla Village Dr, #500, San Diego 92122

**Vista (760)643-4084**  
380 South Melrose Dr, #363, Vista, CA 92081